

# 대학생 소프트웨어 챌린지 대회

대학생 소프트웨어 챌린지 대회는 한국공학한림원이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기반 사업화 마인드 제고와 제품의 사업화를 통한 창업지원까지 장려할 목적으로 2017년 처음 개최했다.

## 제1회

윤힘찬(소프트웨어학부 12)·허지웅(한국언어문학 11) 학생 우수상

- 윤힘찬, 허지웅 학생은 혼자 사는 자취생이 알아야 할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‘자취생으로 살아남기’라는 클라우드 기반의 앱 서비스를 개발해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. 본 서비스는 기존 오프라인 형태의 1인 가구 모임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체하고 살림에 필요한 종합 정보를 모바일 콘텐츠로 제공해 지역 및 문화에 따른 1인 가구들이 원활한 소통과 지속적인 실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.